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무아와 업보의 관계(2)

무아설에 따라 불교는 무신론으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신을 정의할 때 전지성, 전능성, 창조성 등과 함께 제일원인으로 정의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신이 궁극적 근원자이며, 일체의 제일원인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무아설은 제일원인에 해당하는 궁극적 실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있으므로 무신론이라 말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아설과 업보설은 양립이 가능한가? 피차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전개가 가능한가? 우선 업보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업보란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업이란 용어는 카르마란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며, 카르마란 바로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야기된 일체의 결과를 보(報)라고 말한다.

불교에서 업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몸, 입, 마음으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다. 이 세 가지 중 기본이 마음이다. 마음이란 다른 말로 우리들의 의지를 의미하며, 이 의지가 결정적으로 표출되어 입이나 몸으로 구체화되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난 행위란 의미의 표업(表業)이라 부른다. 그러나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행위로 옮기지 않고 잠복 상태에 두거나 소멸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겉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기에 무표업(無表業)이라 부른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우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점이다.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모든 사건은 자신이 인정하든 아니든 자신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보(報)란 무엇인가? 이것은 과보란 말을 줄인 말이다. 행위의 결과 필연적으로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바로 과보라고 말한다. 예컨대 술에 취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역시 과보가 된다. 결국 몸, 입, 마음(의지)의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일체의 사건을 과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초기불교에서는 작용과 반응으로 해석한다. 즉 업이란 의지적 작용을 표현한 말이며, 보란 이에 상응한 필연적인 반응으로 본다.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지)의 여섯 가지 근본적인 기관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존재의 여섯 가지 대상을 의식하게 된다. 여기서 의식한다는 것은 작용과 그에 따른 필연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용과 반응 사이에는 필연성이 있으므로 작용을 원인(因)으로 반응를 결과(果)로 말할 수 있다. 인과란 필연성을 지닌 두 사건 사이에 붙여지는 말이듯이 업보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업보를 업인과보(業因果報)의 법칙이라 말한다. 바로 인과법칙인 것이다.

상의 업보설 즉 인과법칙은 사회생활에도 적용되는 데 이 경우 사회윤리적으로는 선인선과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누구는 부자 집에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반해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산다. 누구는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비해 누구는 술 마시고 방탕하며 일생을 보내는데도 생활에 궁핍함이 없다. 기타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과법칙에 대해 그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한다.

매우 비참한 사건이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 그것을 인과업보설과 윤회설을 결부해 설명하기엔 문제가 있다. 자신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생에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불행이나 비참한 사건에 대해 체념하게 하고, 그것에 순응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인간을 숙명적인 결정론에 빠지게 만들어 역경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 본래의 업보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단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에 반해 업보윤회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배제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의지에 따라 반응한 것이 업과 보
무아설과 대비 설명엔 다소 무리

또한 업보설은 무아설과 대비하여 설명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작용과 그에 따른 필연적인 반응 사이에서 일체 모든 존재가 성립한다는 것은 자연법칙의 세계에선 논리적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불확정한 인간의 삶 속에서, 더구나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과 그 결과를 이야기 할 때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한 인간이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본질을 지니지 않는 인간이 그 결과를 받는다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도덕부정론자들이 부처님을 비판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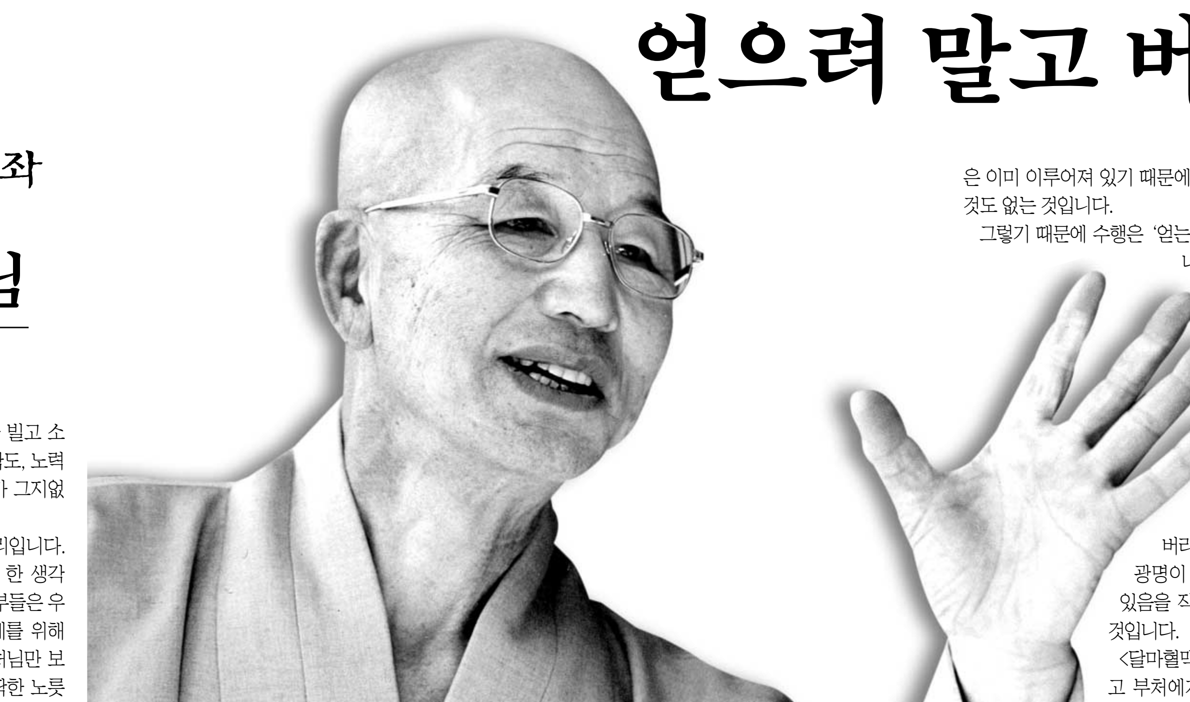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지상 백고좌

얻으려 말고 버릴줄 알아야

정 무 스 님

(안성 석남사 주지)



◇정무 스님은 "수행은 얻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속하는 것"이라며 수행을 한다는 그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참 성품 보아야 '걸림없는 실천' 가능

많은 불자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복을 빌고 소원성취하기를 바랄 뿐 정작 부처가 될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불교란 범부의 몸으로 성현이 되는 도리입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생각 돌이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임에도 범부들은 우주에 충만한 부처를 보지 못하고 중생구제를 위해 사람의 몸을 빌어 잠시 나투신 눈앞의 부처님만 보고 복과 소원성취만을 빌고 있으니 실로 딱한 노릇입니다.

마음은 본래 물과 같습니다. 물은 주변 상황에 따라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불성입니다.

물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을 보기만 하면 복을 빌고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것은 욕심이지 수행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기도를 한들 탐욕만 더할 뿐이지 공덕은 쌓아지지 않고, 업장 또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수행을 하려면 복도 버리고 소원성취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얻으려고만 할 뿐 버리지 못하면 병(病)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변비'라고 하는 병도 따지고 보면 먹기만 하고 버리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고, 비는 강물이 되어 마침내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집착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고 탐욕도 모두 버린다면 누구나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육조 혜능스님은 나무꾼 시절에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깨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는 뜻으로, 번뇌망상을 버리고 어떤 모양이나 사상에 개의치 말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옹화상의 오도송에도 이 같은 마음이 잘 담겨있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그러나 우리는 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깨달음' 조차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는 납자들에게 일러주는 수행 간 유의사항에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수행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닦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의 본성은 늘 밝게 빛나고 있으며 진실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애써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얻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수행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게 어긋나 버립니다. 번뇌와 망상, 탐욕을 비우고 버리는 속에서 문득 본성 광명이 그대로 밝게 비추고 있음을 직시할 때 바로 깨치는 것입니다.

<달마혈맥론>에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念)하지 말라. 부처는 경(經)을 읽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戒)를 가지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지킴도 범함도 없으며, 선과 악을 짓지도 않는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곧 부처일 것이다. 성품을 보지 못한 채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계를 지키거나 계를 지킨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염불은 왕생의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스런 과보를 받거니와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느니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수행한다'는 상(相)을 갖게 되고 너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일체 번뇌로부터 해탈하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인데 또 다시 수행에 묶여 버리는 어리석음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참 모습은 본래 나와 너도 없고, 오고 감도 없으며, 늘어남과 줄어듦도 없으니, 먼저 성품을 보지 않고서는 무엇인가 얻으려는 생각, 공덕을 쌓아간다는 생각을 여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품을 보지 못한 수행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코 도에 이를 수 없으니 어디에도 걸림 없는 참 성품을 보아야 무위(無爲)의 행(行)이 가능한 것입니다.

> "무한한 포용력 갖고도
> 우쭐대거나 자랑할 줄 모르고
> 오직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 닮길"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란 물 위에 비친 달빛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난제(難題)는 모두 가지려고만 하고 버릴 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얻고 버리는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풀과 나무들이 버리는 맑은 산소로 동물이 생명을 이어가고, 동물이 버리는 이산화탄소로 식물이 살아갑니다. 생(生)과 사(死)가 둘이 아니듯이 '얻는 것'과 '버리는 것' 또한 둘이 아닙니다. 참으로 버림으로써 참되게 얻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당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는 그 자취를 남기지 않고 마당을 쓸 듯이 우리의 마음 깊이 잠들어 있는 삼독심(三毒心)을 아무 흔적 없이 버려야 합니다.

또한 참된 수행을 하려면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는 내 마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짓는 죄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 참회할 수 없으니 죄는 눈덩이처럼 굴러갈수록 자꾸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둑놈이 왜 밤중에 몰래 다니고, 죄를 짓고 경찰에 잡힌 사람들이 왜 얼굴을 가립니까? 모두 자기 마음에 부끄러운 줄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만년(萬年)의 세월도 부족하지만 인생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저 잠깐일 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듯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찰나간이요, 그저 숨 한번 내쉬고 들이 쉬는 호흡지간(呼吸之間)에 불과한 것이 인생입니다. 물은 분별하지도 않고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흘러가다가 막히면 돌아갈 뿐이고, 고이면 그저 머무를 뿐이지 이를 가지고 분별하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않고, 늦는다고 조바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움이 물에 버려져 악취가 넘쳐나도 깨끗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은 맑고 깨끗함, 그 원대한 포용력을 지니면서도 결코 우쭐대거나 자랑할 줄 모르고 오직 낮은 곳을 찾아 다닐 뿐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은 하나입니다. 손등은 손바닥을 보지 못하여 서로가 하나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범부의 삶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손등과 손바닥이 서로 하나임을 알듯이 미망(迷妄)에 잠들어 있는 우리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참된 수행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글=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기자가 본 정무스님

경기도 안성 서운산 자락에 자리잡은 석남사(石南寺). 신라 문무왕 20년(680) 창건됐다는 이 천년고찰에 들어서면 왼쪽 요사채의 외벽 기둥에 걸린 한글 주련이 눈길을 끈다.

"우주는 한 집안/중생은 한 몸/서로 원망 말고/은혜만 갚아라."

"주련이란 것도 부처님 말씀인데, 한 눈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써야지, 어려운 한자로 써 놓으면 누가 알아먹어야 말이지. 앞으로 법당 현판도 한글로 바꿔나갈 생각이야." 40여 년 신도교육과 포교에 매진해 온 정무(73) 스님다운 말이다.

정무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의 대선사 중 한 분인 전강 스님을 은사로 1958년 사미계를 받았다. 그러나 은사 스님의 선맥을 잇기보다 여러 법회의

교육·포교 40년…불교계 최초 '여름수련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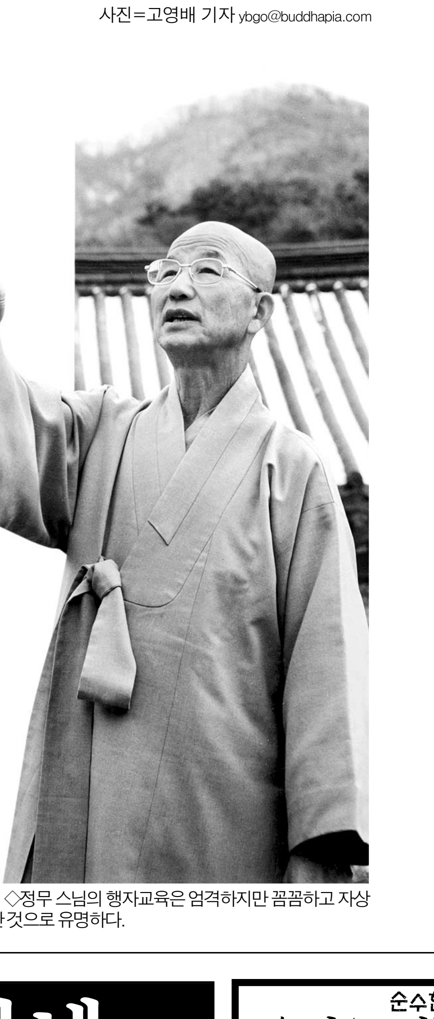
지도 법사를 하면서 포교에 힘썼고 특히 신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접 프로그램을 고안하기도 했다. 1968년 영주 포교당에서, 당시로선 이름조차 생소하던 '여름 수련회'를 최초로 개최한 분이 바로 정무 스님이시다.

정무 스님은 신도교육뿐 아니라 행자를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오죽했으면 스님 밑에서 행자생활 하다 행자교육원 가면 호텔 온 기분이라는 말도 있다"고 들은 말을 살짝 꺼내자 스님은 정색을 했다. "난 그렇다고 무조건 억지 부리진 않아. 꼭 이치를 따져 차근차근 납득하게끔 하지. 수행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옳은 것을 따라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조그만 수첩 하나를 꺼내 보이셨다. 겉을 보니 '2000년'이란 표시와 함께 '행자교육'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인성회복이 수행이다'를 시작으로 예배공덕, 청소공덕, 화합, 건강, 은혜, 보시까지 모두 스물두가지가 적혀있다. 평소 생각이 날 때마다 짬짬이 적어 놓으신 것이라고 한다. 엄격하면서도 꼼꼼하고 자상한 행자교육의 비결이 이 손바닥만한 수첩 속에 다 들어있는 셈이다. 주머니에서 다른 수첩 하나를 꺼내 더니 또 새로운 내용을 잔뜩 적어 넣으신다.

사실 스님은 '지독한 메모광'이다. 어딜 가든지 주머니 속에는 조그마한 수첩과 볼펜이 들어있다. 심지어 "목욕탕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메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스님.

스님의 메모벽(?)은 요즘도 직접 논밭을 일구실 정도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백장청규를 실천하고 있는 청렴한 수행자적 삶에서 연유한 듯하다. 방마다 깔아놓은 카펫은, 심야전기로 물을 데우고 낮에는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덮어두지 않으면 방이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이다. 문이며 창마다 붙어있는 세계의 불교유적 사진도 지난 달력을 버리기 아까워서 오려 붙여 놓으셨다는 설명이다. 스님의 검소함에 더 이상 할 말을 잊고야 말았다.



◇정무 스님의 행자교육은 엄격하지만 꼼꼼하고 자상한것으로 유명하다.

남전스님의

스님이야기

목주스님 (上)

내가 처음 절과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님 때문이다. 사실 나는 국민학교(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중학교 시절에 일요일엔 거의 교회에서 사는 골수 기독교인이었다. 어머니는 그 당시 대부분의 불자(佛子)들처럼 절에 열심히 다니시면서도 점 집에서 점을 보셨다. 어렸을때 나는 그런 어머니와 또 어머님이 믿는 불교를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왠지 모를 거부감같은 것도 있었고…. 한번은 어머니께서 점을 보고 오시더니 내 명(命)이 짧다고 하시며, 절에 이름을 팔아야 한단다. 며칠을 완강히 버티던 나는 어머님의 성화에 못이겨 결국 서울 강남 삼성동의 봉은사엘 갔다. 거기서 지금 나의 은사 스님을 만났고 이름도 팔았다(그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몰랐지만)… 또 스님과의 약속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절에 오기로 했다. 그때부터 나는 일요일 오전에는 교회에 가고 오후엔 절에 가는 이상한 생활을 한참 했다. 당시 어린 나에게 교회는 재미 있었지만 절에 가는 것은 고역이었다. 그렇게 절이 싫다는 생각을 오래 했었으면 나는 출가(出家)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런 나에게 불교에 대한 새로운 느낌과 불교에 심취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분이 목주스님이시다.

그림 · 문병성

내 기억으로 스님은 그때 봉은사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스님이었다. 학원 공부에 절 일에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스님은 절에 오면 항상 재미없어 하고 긴장하고 있는 나를 위해 재밌는 얘기며 절 곳곳을 구경도 시켜 주셨다. 또 집에 올 땐 항상 차비도 주셨다. 어린 내게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했었는 지도 모르겠다. (웃음) 그렇게 나는 절에서의 시간을 스님 덕분에 재밌게 보냈다. 스님을 못 뵌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내 마음에는 천진하고 자상한 스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스님은 나를 불교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강력하게 불교 공부를 권했던 분이기도 하다. 어쩌면 지금 내가 출가하고 수행자 흉내를 내는 것은 모두 스님 덕분일 것이다. 스님은 내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도(印度)를 알고 공부하는 것은 필수라며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되었다.

스님과 나는 승랍(僧臘)은 은사와 제자뻘이지만 학교는 1년 선후배 사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목주스님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스님이 평소엔 웃음과 농담으로 얘기하다가 중요한 순간엔 매우 논리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설득하며 토론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것이 그때는 어찌도 그렇게 멋있게 보이던지 나도 출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했다.

내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 스님은 봉은사에서 중·고등부 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으셨다. 그때 스님의 권유로 나는 지도교사를 했었다. 스님은 기존의 형식적인 법회에서 벗어나자며 대단히 능동적이고 파격적인 법회를 운영하고자 했다. 그 첫번째 작업으로 학생회 자체의 이름을 '보디삿트바의 모임'이라고 지으셨다. 대개 학생회 법회는 절 이름 뒤에 붙여 그냥 쓰는게 일반적이었다. 또 지금은 범어(梵語)를 쓰는 것이 많이 보편화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불교와 인연맺게 이끌어준 스님
논리적·당당한 자세 내게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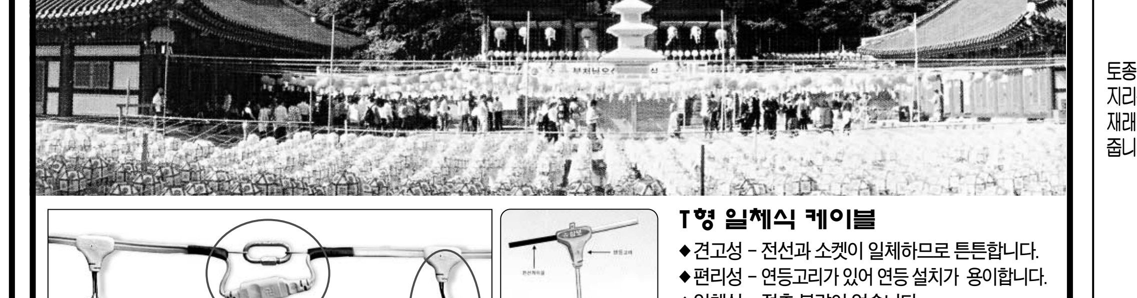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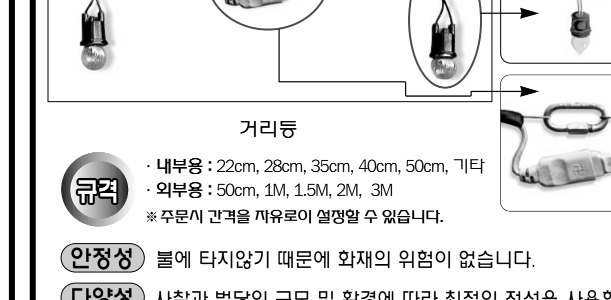
낯설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보살'이란 말은 원래 범어로 '보디삿트바(Boddhisattva)'다. 이것을 중국에서 보리살타(菩提薩陀)로 쓰게 되었고,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살은 수행하는 모든 이를 총칭해서 쓰는 말인데, 사실 그때만 해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지칭하거나 점 집 주인을 가리키는 말인줄 알았다. 그런데 스님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불교의 모습을 전해야 한다며 그런 이름을 지으신 것이다. 처음엔 아이들도 그저 웃기만 했지만 나중엔 다들 자부심도 갖고 불교의 바른 모습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것 같았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아이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보디삿트바 라는 이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단다. 나는 그때 스님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지금도 아이들에게 불교 용어부터 바르게 설명하고 법회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또 아이들에겐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법회를 진행하라는 스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한다. 언제나 자신있고 재미있게 우리를 감동시켰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민이 많았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법회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본다.

■서울 창동 정혜사 주지

TDP神燈-생명의 빛!!
중국의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에너지파, 수퍼원적외선 등 방사파장을 신체에 동시 투사하여 인체의 면역기계와 순환기계, 소화기계, 등 생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으로 열에 약한 병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의료기입니다.
세계발명품 박람회 금상수상 金賞
모든 가정마다 TDP치료기를 1대씩... –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가정상비용 의료기
※ 각종 참고자료 - 4,300여명의 환자별 임상실험 통계
미국 FDA검증(No.K875052)
한국 의약품안전청 허가(제수허 01-506호)
TDP 신등은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과 악성 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관절염 증상으로 허리, 무릎, 팔목 등 관절통증에 시달리는 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성인병에 시달리는 분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이뇨장애가 있는 분
◆고질적인 치질, 치루, 탈항으로 고생하는 분
◆부인병 – 냉증, 세균성 염증, 생리불순, 생리통을 가지신 분
◆자주 재발되는 피부 트러블을 가지신 분
◆전립선 기능장애로 신경이 쓰이는 분
유고 국제 박람회 금상 수상, 벨기에 부뤼셀 만국박람회 은상 수상
◆중국 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의 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 가정용)
◆한국-1995년도 보건복지부 수입허가 이후 국내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중
건강21 02)457-2831~2 (자료책자 무료우송)

삼 보 전 기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거리등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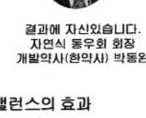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귀신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특별보시!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ll unjang21@kornet 21. 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회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주문신청방법 우체국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조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